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The Role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임 정 빈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Im, Jung - Bin

한양대학교 여학생부처장실
조 교 : 정 혜 정

The Co-ed Section of Student Affairs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 Chung, Hyejeong

목 차

I. 서 론	V. 결과 및 해석
II. 문헌고찰	VI. 결 론
III. 가설설정 및 변인의 정의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및 절차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everal variables which were assumed to have relationships with the role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role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The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of the 262 married working women who reside in the city of Seoul employing questionnaire method.

Such methods as frequency, percentile, facto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t-test, F-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ole conflict level of married working women was related to variables such as age, the number of children, work time, husband's support, job satisfaction, motivation to work outside the home.

2) The overall marital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when they have two children and the presence of household work help.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ma-

rital satisfaction considerably high when husband's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was highly accorded.

3) The role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I. 서 론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쇠퇴해 가고 새로운 서구문화의 도입과 함께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산업화의 물결은 많은 특징적인 현상들을 초래하였다. 여성취업률의 증가는 그러한 특징적인 현상들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증가원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취업에 적합한 직업분야의 출현등 사회로부터의 유인압력과 남녀평등사상으로 인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자아실현욕구등의 내적동기유발, 그리고 편리한 가정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여가시간의 증가등 가족내의 여성에 대한 구속조건의 약화등은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유영주, 1978, p. 348).

이와 같이 여성의 취업을 조장하고 촉진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속에 내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여성의 지위는 종래의 절대 종속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가장장적 권위구조의 잔재의 영향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집안살림은 결혼생활에 기대되는 역할이며, 가정 밖의 직업은 결혼에 대한 긴장의 근원이 된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이정우, 1974, p. 154), 결국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은 직업역할과 가정역할을 양립시켜야 하는 무거운 부담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여성들은 '자기속에 내재하는 자아정체감의 혼란,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여성의 취업은 여성의 자아실현 및 가정경제에의 원조등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받은 보상은 결혼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여성의 취업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고유의 가정적 역할이외에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부정적인 결과만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의 취업이 한 개인으로서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에 부합할 때 여성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가족 및 사회등에 기여하는 바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부가 직업을 가질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생활전반에 대한 취업주부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는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주부의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주부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아직까지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 및 가족배경변인만으로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업배경변인과 결혼만족도를 관련시킨 연구는 소홀히 하고 있다. 더구나 핵가족화의 경향과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의 점진적인 와해로 인해 결혼생활에 있어 남편의 태도와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지지여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태도변인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개인 및 가족배경변인, 남편의 지지, 직업배경변인에 따른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고,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문헌고찰

1. 역할 및 역할갈등의 일반개념

역할의 개념은 여러분야에서 오랫동안 폭 넓게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학문영역마다 역할의 개념규정에 입장이 다르므로 역할이란 용어는 서로 매우 상이한 의미와 용법을 가졌으며 이렇다고 할 만한 통설적인 개념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오인환 · George won · 이상희, 1974, p. 32).

이러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사회학 및 가정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Duvall (1977, p. 10) 은 역할이란 개인이 가족, 사회, 집단내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와 관련된 행동, 의무, 권리에 대한 기대라 하였고, Dyer(1971, p.248) 는 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나 지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행동양식을 역할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역할개념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각 개인에게 맡겨진 행동규준이며, 개인이 어떤 지위를 차지할 때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 · 의무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지위란 한 개인이 사회구조내에서 타인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보편적인 법적 · 사회적 혹은 전문적인 위치를 말한다 (유영주, 1984, p. 1975).

이러한 역할개념으로부터 역할인지, 역할기대, 역할수행, 역할갈등의 하위개념이 도출되어 역할이론의 기본개념들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성격상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갈등이란 둘 내지 둘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유영주, 1984, p. 329), 역할갈등은 개인이 점유하는 하나 혹은 여러 지위에 관련된 역할군의 기대들이 서로 상반되거나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인이 모든 역할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이은주, 1981, p. 17).

역할갈등의 개념은 사회과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데, Berkowitz 와 Perkins (1984, p. 163) 는 두가지 이상의 역할요구 혹은 책임간의 갈등이나 모순을 역할갈등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Nevill과

Damico (1974, p. 743) 는 역할기대와의 순응이 곤란한 상태를 역할갈등이라 하였다. 역할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1) 역할간갈등(Inter-role conflict)

인간은 복잡한 사회구조속에서 다양한 지위를 동시에 점유하게 되는 데,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두가지 이상의 지위 때문에 성격상 상극 또는 상치되는 역할이 한꺼번에 기대되는 경우를 역할간갈등(Inter-role conflict) 이라고 한다.(Deutch, 1969; 유영주, 1984, p. 331). 이와 같이 역할간갈등은 개인이 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역할에의 부적응이나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역할모순(role incompatibility) 이라고도 한다 (김경동, 1978, p. 275).

2) 역할내갈등(Intra-role conflict)

역할내갈등이란 역할에 대한 정기가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갈등 (이은주, 1981, p. 62), 즉 하나의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역할기대나 역할인지의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말한다 (유영주, 1984, p. 331). 이는 개인이 점유하는 하나의 지위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이 여럿일 뿐 아니라 이 역할기대들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로 역할의 불일치(role inconsistency) 라고도 한다 (김경동, 1978, p. 276).

그런데 Sieber(1974, p. 568)는 역할긴장(role strain) 및 역할과중(role overload) 이 역할갈등과 중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데, 역할긴장은 모든 역할관계내의 문제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곤경을 말한다.

2. 여성의 역할변화와 역할갈등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역할변화는 우선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시가에 혼합한 후 대가족제도의 수직적인 상하관계속에서 시부모를 철저히 봉양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하는 동시에, 가족 전체로 볼 때 남성의 대외적인 역할에 종속되는 역할과 함께 가족의 심리적 안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광규, 1975, pp. 142~172). 즉 여성의 전통적 역할은 주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주부로서의 가정적 역할만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현대사회에서도 성차에 의한 역할의 차이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와 함께, 가사의 성질이 변화하여 옛날의 주부들이 수행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가정밖에서 전문적인 작업으로 처리되고 있고,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시설들이 가사를 단순화시켰으며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개념을 와해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성들도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경제구조적인 변화가 왔다 (이동원, 1979, p. 370). 따라서 현재의 사회구조속에서 여성은 가정적 역할외에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수행의 기회와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족에 있어서는 주부가 직업여성이라고 해서 남편의 가내역할이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효재, 1983, p. 363).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오늘날 사회는 여성에게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역할 사이에서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동원, 1979, p.371). 박숙자의 연구 (1978)도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가 증대되는 한편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규범의 변화 및 여성스스로의 의식구조의 변화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느끼는 역할갈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구체적이지 못한 몇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외국의 경우 다음의 연구자들이 여성의 역할갈등의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Hatch와 Hatch (1972) 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여성잡지를 자료로 하여 취업주부의 문제를 다룬 세편의 기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성자신의 문제, 자녀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정의 경제라는 네가지로 역할갈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후 Nevill과 Damico(1974)는 여성의 역할갈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Expectations for Self), 시간관리(Time Management), 가정관리(Home Management), 죄책감(Guilt), 타인의 기대(Expectations of Other),

재정문제(Financial), 남편과의 관계(Relations With Husbands), 자녀양육(Child Care)이라는 여덟가지 영역으로 여성의 역할갈등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역할갈등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함으로써 역할갈등단계(role conflict hierarchy)를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자신에 대한 기대'와 '죄책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의 갈등의 초점이 내면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영역은 '시간관리'와 '가정관리'로서 이 두영역은 여성이 자신이 처한 환경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있는 여성으로 자기자신을 개념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교적 역할갈등수준이 낮은 영역은 '타인의 기대', '남편과의 관계', '자녀양육'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체계적인 결정을 시도한 후 Nevill과 Damico(1975)는 여성의 결혼상태(marital status)가 역할 긴장의 중요요인이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여성의 결혼상태와 역할갈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역할갈등의 8개영역 가운데 '자신에 대한 기대'와 '타인의 기대'를 제외한 6개 영역에서 여성의 결혼상태가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우기 연구결과는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태도와 여성에 대한 일반화된 역할기대가 중요함을 제시해 주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취업부부가족의 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취업부부가족내에 향존하는 스트레스와 긴장, 아내의 취업에 따른 결혼적응을 연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성의 역할갈등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의 취업에 따른 역할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으나, 취업주부가 가정과 직업역할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역할갈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3. 주부의 취업유무와 결혼만족도

결혼의 만족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유영주, 1980, p. 334)로서, 주부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주부의 취업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유무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로 연구결론들을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주부가 직업을 가질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한남제(1972, pp. 93 ~101), 이정우(1974, pp. 175 ~177) 등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일반주부의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해 연구한 이동원(1976, p. 248)은 고용직과 자영직의 직업활동여성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편으로, 일반여성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한편 Nye(1953)는 여성의 직업활동으로 인한 역할분담은 결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생각하였다. 즉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 여성의 지위 향상,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감사, 가족의 민주적 결정권에서의 기여, 직업을 통한 사회적 접촉에서의 즐거움 등이 취업에서 파생된 갈등을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결혼만족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 (김혜선, 1982, p. 36).

둘째로, 주부가 직업을 가질 경우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Szinovacz(1977, p. 790)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이 부인의 세력을 높인다고 해도, 남편과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기대가 지속되고 남녀의 역할수행이 여전히 분담된다면 부인이 공동의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주도권을 양보할 것이며 따라서 취업주부는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 같다고 한다. 김혜선(1982, p. 36)이 정신분석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여성의 직업활동은 비여성적 성격의 측면으로 간주되는 공격성, 경쟁성, 지배성을 조장시키며, 지배적이고 싫어하는 남성들에게 가족부양역할의 분배는 자아손실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은 배우자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유영주(1979, pp. 9~10)도 주부가 직업을 가졌을 경우 남편의 부인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부인 자신이 직업을 가졌을 경우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주부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정내역할과 사회적역할을 수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번째, 입장은 주부의 취업유무자체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 보다 환경적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달라진다는 견해이다.

박태은(1983, p. 142)은 주부의 직업유무와 결혼만

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결과, 주부의 취업자체보다는 주부의 건강, 능력, 직업에 대한 자신감, 주부의 직업관, 혹은 직업에 대한 태도 및 남편의 태도와 지지여부,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Houseknecht와 Macke(1981, pp. 655~657)는 전문직여성의 경우 취업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여부가 결혼만족도와 관련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정우(1974, pp. 159~161)의 연구는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취업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취업관 혹은 직업에 대한 태도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즉 부인이 직업을 갖기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높고, 결혼후 직업을 원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결혼적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부의 취업이 점차 보편화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주부의 취업자체보다 취업동기, 직업에 대한 태도, 남편의 지지여부등이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1) 개인 및 가족배경변인

Keith와 Schafer(1980)는 취업주부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수행간에 긴장을 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취업주부의 경우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동원, 1976; 김명자, 1977; 유영주, 1979; Orden & Bradburn, 1969).

자녀의 연령은 결혼의 질과 관련있는 가장 특징적인 요인으로서, 직업부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 질은 높아지며(Thomas, Albrecht & White, 1984), 자녀의 연령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직업역할과 가족역할간에 긴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특히 취업부부가족내에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직업여성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Keith & Schafer, 1980; Skinner, 1980). 이와 같이 취업부부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을 경우 직업과 가족역할간에 긴장과 갈등을 느끼고, 결혼적응이 낮아진다(Houseknecht & Macke, 1981)는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취

업부부에게 있어서 자녀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형태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최재석(1970)은 시부모동거가족에서는 취업주부가 일반주부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훨씬 높은 반면, 부부가족에서는 취업주부가 만족도는 낮은 반면 불만도는 높다고 하였다. 이는 Skinner(1980)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로 그가 핵가족의 경우 친척으로부터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핵가족형태는 직업부부의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명자(1977)는 가족형태 그 자체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2) 남편의 지지

Arnott(1972)는 남편의 지지 및 태도는 아내의 취업이 가족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라고 하였다. Thomas 등(1984)은 남편의 지지가 낮을 때 취업주부는 역할과중 및 가정관리의 과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고, Berkowitz와 Perkins(1984)는 낙농업에 종사하는 아내의 경우 남편의 지지는 역할갈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Coping Mechanism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Burke와 Weir(1977, 1982)도 남편의 지지유무는 취업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증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Keith와 Schafer(1980)는 여성이 자신의 역할과중을 남편에게 분담시킴으로서 감소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역할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서 아내들은 남편이 도와줄 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Housenecht 등(1981)은 남편의 지지는 결혼해체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Burke와 Weir(1976, 1977), Thomas 등(1984)은 배우자의 도움과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관련이 있어서, 배우자의 도움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과 결혼만족은 높아지며, 특히 남편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분담할 때 결혼의 질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Housknecht와 Macke(1981)는 전문직 여성의 결혼적응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내의 직업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정도이며, 특히 남편의 지지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3) 직업배경변인

Keith와 Schafer(1980)는 아내의 주당평균근무시간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간의 역할긴장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라고 하면서 아내의 취업은 대개 남편의 직업에 대해 부차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내의 근무시간은 부부 모두에게 여분의 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동원(1976)은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사무 및 행정직, 판매 및 써비스직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유영주(1979)도 부인이 직업을 갖는 경우, 자유직, 전문직, 근로직의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취업동기는 사회·경제적 측면, 가정·개인적 측면 등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 이정우(1974)와 이동원(1979)은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취업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취업관 혹은 직업에 대한 태도 여하에 달려 있어서, 부인이 직업을 갖기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취업동기와 역할갈등을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Herman과 Gyllstrom(1977)은 취업동기는 취업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동안 직무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 걸친 개인으로서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직업만족(job satisfaction; 최영안, 1980, p. 5)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동원(1976), 이호재(1983), Zimmerman, Skinner와 Birner(1980)는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직업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률이 높고 직업활동에 있어서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생활 역시 보통이거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Thomas, Albrecht와 White(1984)는 직업만족은 직업여성의 자부심과 생활만족에 기여하며 따라서 결혼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4)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역할개념이 가부장제에서 평등주의로 옮겨가는 변

화와 더불어 부부상호간의 역할개념 및 기대의 불일치는 역할갈등을 초래하여 결혼적용을 저해하게 된다.

기혼여성에게는 어머니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과 가정관리자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만약 기혼여성이 직업 및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과거 전통적으로 답습되어온 가정적 역할을 그대로 맡으면서 부차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동원, 1976, p. 231).

따라서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은 현실적으로 고되며 많은 갈등을 겪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며 부부관계에도 발전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생활에 대한 안정과 만족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효재, 1983, p. 270). Goode(1982, p. 152)는 아내의 취업은 결혼생활의 갈등태도를 증가시키지만 가정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행복수준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다만 의견상의 역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취업주부는 직업자체를 통하여 많은 양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다소 많은 갈등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남제, 1972, p. 98).

Thomas 등 (1984, p. 519)은 결혼의 질을 낮게 평가한 아내들은 역할과중과 가정관리의 과중으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 경험을 보고한다고 하였다. 현대 한국 가정내에서의 여성역할은 역할과중, 역할상실 및 결핍, 역할갈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어느 상황에서나 육아 및 가정생활에 역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동원(1979, p. 387)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주부들은 가정적 역할 및 직업적 역할간에 갈등을 경험하며 따라서 결혼의 질은 낮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원(1978, p.381)은 직업활동 여성들은 가정과 직업활동간의 이중적 역할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나, 직업활동을 통해서 생의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부부관계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아울러 자녀교육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안정성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학자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견해와 주부가 직장생활로부터 받은 보상은 취업으로 인한 역할갈등

을 어느정도 상쇄하며 따라서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는 두가지 견해로 종합할 수 있다.

Ⅲ. 가설설정 및 변인의 정의

1. 가설설정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라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1.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는 각각 몇개의 요인으로 세분될 것이다.

가설 I-2. 결혼만족도 측정군으로부터 남편의 지지 및 직업만족도 요인이 추출될 것이다.

가설 II-1. 개인 및 가족배경변인에 따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2. 남편의 지지에 따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3. 직업배경변인에 따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1.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부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III-2. 역할갈등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3. 결혼만족도에 따라 역할갈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인의 정의

1) 개인 및 가족배경변인 : 취업주부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족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변인가운데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막내자녀의 나이, 가족형태, 가사조력자의 유무등 6개 변인을 개인 및 가족배경변인으로 한정한다.

2) 남편의 지지 : 남편의 가사협조,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이해·관심 및 협조등 취업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지지(support)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3) 직업배경변인 : 취업주부의 직장생활과 관련있는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직종, 근무시간, 취업동기, 직업만족도등 4개 변인을 직업배경변인으로 한정한다.

4) 역할갈등: 취업주부는 어머니, 아내, 주부로서의 가정적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반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역할에의 부적응이나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부담이나 괴로움을 역할갈등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역할인지에 대한 역할수행이 취업주부 자신의 기대수준에 못미친다고 평가할 때 비롯되는 갈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부의 취업에 따른 역할간갈등과 자아상 (self-image) 에의 불만족으로부터 비롯되는 역할내갈등을 포괄하고 있다.

5)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전반에 대한 취업주부의 주관적 만족정도이다. 따라서 이는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된다. 특히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개인적·가정적 환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분은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부분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을, 세번째 부분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역할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Nevill 과 Damico(1974, 1975) 가 역할갈등을 8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것을 골격으로 하고, Berkowitz 와 Perkins(1984) 가 사용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내용에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의 질문내용에 대해 괴롭거나 부담스러운 정도를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의 다섯 단위의 응답범주를 두었다. 응답이 극히 긍정적일 때 즉, 역할갈등이 매우 심할 경우 5점을, 극히 부정적일 때 즉, 역할갈등이 매우 낮을 때 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2)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Orden 과 Bradburn(1968) 과 Spanier(1976), 유은희(1976), 김명자(1977), 윤명희(198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특별히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Berkowitz 와 Perkins(1984) 가 사용한 질문 내용을 본 연구자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결혼만족도 척도에 포함시켰다.

총 33개 문항에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까지의 다섯 단위의 응답범주를 두었다. 응답이 매우 긍정적일 때는 5점, 극히 부정적일 때는 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3) 직업만족도의 측정

직업만족도 측정은 단답식의 질문을 피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Burke 와 Weir(1977), 최영안(1980), 이종립(1981)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자기의 직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직무 전반에 걸친 감정이나 태도를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까지 다섯단위의 응답범주를 두었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거주지와 직장인 분리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소득수준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5개 직종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즉, 표본의 추출은 직종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간호원, 사무직원 (은행원, 회사원, 공무원), 및 상인을 각각 60명씩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이상의 5개 직종에 한정됨으로써 사회적 계층을 고르게 포함하지 못하여 분석결과는 그 대표성이 다소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통계처리

본 조사용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1985년 8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본조사용 질문지에서 삭제하였으며, 직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취업주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어 직장파와 거주지가 동일한 직종 (예; 미용사, 약

사등)은 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본조사는 1985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300부 중에서 268부가 회수되어 89.3%의 회수율을 보였고, 부실기재등 연구에 합당치 않은 대상을 제외한 262부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변인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질문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미리 설정한 요인이 과연 예상대로 추출되는가를 확인하려는 목적과 요인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지수화하여 추후분석에 이용하려는 측정목적(오택섭, 1984, p.304~305)등 두가지 목적을 위하여 역할갈등 측정군과 결혼만족도 측정군을 분리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기준(Varimax Criterion)에 따라 회전시켜 아이겐치(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각 요인들의 인자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한 후 다음과 같은 추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배경변인에 따른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고,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각 하부요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가설 I 검증결과 및 해석

1) 역할갈등에 대한 요인분석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총 26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문항은 25 문항이며 1 문항은 타당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은 각각의 구성항목의 성질에 따라서 '자녀양육', '자기에 대한 평가', '아내역할', '남편과의 관계', '시간관리'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내용 및 요인적재치는 표 1-1과 같다.

2) 결혼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혼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은 결혼만족도에 관한 질문내용이외에 남편의 지지 및 직업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총 38개 문항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 아이겐치가 1.0이상인 요인은 9개로 추출되었는데, 1개요인은 적재된 문항수가 1개에 불과하여 제외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의 각각의 성질에 따른 요인명과 그 내용 및 요인적재치는 표 1-2와 같다.

'남편의 지지' 및 '직업만족도' 요인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삼기 위하여 전체결혼만족도의 하부요인군에서 분리하여 추후분석에 이용하였다.

2. 가설 II 검증결과 및 해석

1) 가설 II-1 검증결과

개인 및 가족배경변인에 따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1, 표 2-2와 같다.

취업주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역할갈등들을 더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역할과 가정역할간의 긴장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Keith와 Schafer(1980)의 견해와 상반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보다도 장년층의 주부들에게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보다 뿌리박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역할갈등은 '남편과의 관계' 요인 및 '시간관리' 요인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는 직장생활로 인해 야기되는 남편과의 갈등 및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데 입어서 갈등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주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갈등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역할갈등이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심하게 나타난 결과는 취업주부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이 클수록 직업역할과 가정역할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은 심해질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전체결혼만족도는 자녀수가 2명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 그러나 막내자녀의 나이 및 가족형태에 따라서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는 아무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만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부모나 친정부모등과 동거하는 경우 자녀양육상의 책임은 어느정도 전가할 수 있으나, 직장생활과 자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표 1-1. 역할갈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명	내용	요인적재치
자녀양육 (28.8) *	· 자녀들의 생활습관, 버릇이 나빠지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8813
	· 자녀들의 영양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8597
	·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8560
	·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나는 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8549
	· 나와 자녀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사랑이 적어지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8019
	·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충분한 관심과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7444
	· 집안일을 남에게 맡기는 점이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4499
자기에대한 평가 (12.5)	· 나는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거나 괴롭다.	0.8174
	·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바라는 희망이나 목표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8016
	· 한 가정의 주부로서 나는 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7291
	·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나는 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6116
아내역할 (6.6)	· 남편의 직장생활의 문제나 피로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7593
	· 남편의 대화상대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7173
	· 아침, 저녁으로 남편의 시중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거나 괴롭다.	0.6779
	·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점이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5648
	·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0.4293
남편과의 관계 (6.0)	· 나의 직장생활로 인해 남편과 사소한 갈등이 많은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8110
	· 나의 직장생활은 남편이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7652
	· 남편이 나의 직장생활에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거나 괴롭다.	0.6844
가정관리 (4.3)	· 집안에 할일이 더 많은 데 직장일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하는 것이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6823
	· 직장생활로 인해 가사에 소홀해지는 점이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5969
	· 직장생활로 인해 집에 오는 친척이나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거나 괴롭다.	0.4869
	· 직장생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해도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점이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3825
시간관리 (4.1)	· 직장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이 부족하여 못하는 것이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6795
	·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정말 해야 할 일에 보낸 시간보다 안해도 괜찮은 일에 보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괴롭거나 부담스럽다.	0.5076

* () 안은 전체에 대한 변량비율임.

임정빈 · 정혜정 :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표 1-2 결혼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 인 명	내 용	요 인적재치
남편에 대한 만족 (24.8) *	· 친정에 걱정거리가 생길 경우, 남편의 태도와 관심에 대한 만족도	0.7343
	·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남편과 나누는 대화 및 의견일치에 대한 만족도	0.7201
	·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0.7091
	· 가정밖에서의 남편의 대인관계나 그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0.6734
	·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0.6633
	· 부부사이에 갈등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나 그 정도에 대한 만족도	0.5498
	· 남편이 나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해 주는 데 대한 만족도	0.5497
	· 부부상호간의 애정표현에 대한 만족도	0.4667
	· 가내행사에 대한 남편의 관심에 참여에 대한 만족도	0.4581
	· 아내행사에 대한 남편의 관심에 참여에 대한 만족도	0.4581
자녀관계 (10.8)	· 우리 부부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0.9139
	·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0.8943
	· 자녀들이 우리부부의 의견이나 기대에 충족시켜주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0.8833
	·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	0.8561
시가관계 (6.1)	· 남편의 자녀학업지도 및 자녀훈육에 대한 만족도	0.7948
	· 시부모님 또는 시댁식구들과 나와의 사이에 대한 만족도	0.8497
	· 가족행사에 대한 시댁식구들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만족도	0.8029
	· 시부모님이나 시댁식구들이 우리 부부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0.7967
가정의 경제상태 (4.8)	· 시부모님이나 시댁식구들이 우리 가정을 관하여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0.7962
	· 우리 가정의 생활용품, 주택이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대한 만족도	0.6538
	· 우리 가정의 현재의 경제상태로 보아 앞날에 대한 경제적인 전망에 대한 만족도	0.6278
	· 사회적인 활동보다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0.5449
가족생활 (3.2)	· 남편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0.5314
	· 나의 수입은 일하는 양에 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0.4219
	· 식구들이 식사시간, 귀가시간등을 지키는 데 대한 만족도	0.7047
	· 식구들의 용돈액수와 그 지출방법에 대한 만족도	0.6563
자아상 (2.8)	· 집안일, 직장일등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얻는 만족정도	0.5110
	· 가족이 함께 보내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0.4674
	· 친척이나 친구가 나로부터 충고받기를 원할 때 나는 그들을 도와줄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0.7792
	· 나의 학교동창이나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정도	0.6179
남편의지지 (6.5)	· 남편의 가사협조에 대한 만족도	0.7668
	· 남편이 나의 직장생활로 인한 긴장이나 피로를 풀어주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0.7601
	· 나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이해와 협조에 대한 만족도	0.6859
	·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 쏟는 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도	0.6176
직업만족도 (3.9)	· 언젠가 자진해서 일할 의욕이 난다.	0.6348
	· 친구에게 나와 비슷한 직업을 권하고 싶은 정도	0.7729
	· 현재의 내 직업이 나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0.7515
	· 기회가 주어져도 다른 직업을 택할 생각이 없다.	0.6607

* ()안은 전체에 대한 변량비율임.

표 2-1 연령·교육수준·자녀수에 따른 변인별 차이

연령·교육수준·자녀수 (N)	연 령			F 값	교 육 수 준		자 녀 수			F 값		
	30 세 이하 (106)	31-40 세 (107)	41-50 세 (48)		고졸이하 (85)	대졸이상 (176)	없 음 (56)	1 명 (88)	2 명 (87)		3 명이상 (31)	
1. 역할갈등												
자녀교육	0.57	2.05	2.00	25.19***	1.47	1.45	0.06	-1.12	1.95	2.26	2.31	114.87**
자기에 대한 평가	0.40	0.39	0.64	0.85	0.46	0.43	0.18	0.34	0.44	0.39	0.74	0.88
아내역할	0.40	0.28	0.11	1.10	0.30	0.31	0.03	0.27	0.41	0.22	0.23	0.46
남편과의 관계	-0.28	0.04	0.16	5.23**	0.12	-0.71	2.08*	-0.38	-0.10	0.07	0.17	3.66*
가정관리	0.13	0.48	0.58	6.13**	0.48	0.30	1.41	0.01	0.31	0.42	0.92	7.51***
시간관리	0.01	0.23	0.05	2.13	-0.07	0.19	2.52*	0.03	0.05	0.20	0.11	0.76
전체 역할갈등	1.23	3.47	3.53	8.41***	2.04	2.01	0.34	-0.84	3.07	3.58	4.49	17.23***
2.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만족	0.40	0.00	-0.23	5.57**	-0.07	0.21	-1.72	0.29	0.24	-0.06	-0.05	1.46
자녀관계	0.60	1.81	2.31	27.45***	1.44	1.43	0.04	-0.99	1.85	2.22	2.30	124.67***
시간관계	0.33	0.29	0.20	0.23	0.37	0.26	0.76	0.31	0.37	0.21	0.26	0.30
가정의 경제상태	-0.22	-0.33	-0.48	1.41	-0.39	-0.27	-0.98	-0.81	-0.36	-0.26	-0.58	1.44
가족생활	-0.07	-0.05	0.06	0.35	-0.09	-0.01	-0.60	0.00	-0.15	0.02	0.06	0.71
자아상	-0.49	-0.58	-0.59	0.55	-0.53	-0.55	0.20	-0.52	-0.51	-0.55	-0.66	0.38
전체 결혼만족도	0.55	1.14	1.27	2.74	2.00	2.03	-0.47	-1.11	1.43	1.59	1.31	6.22***

(***: P<.001 **: P<.01 *: P<.05)

표 2-2 막내자녀나이 가족형태 가사조력자의 유무에 따른 변인별 차이

변인별 요인	막내자녀나이 가족형태(N)				F 값	F 값	가사조력자 유무		F 값
	1세대미만 (34)	1~6세 (92)	7~12세 (47)	13~18세 (24)			가사조력자 있 (153)	가사조력자 없 (108)	
1. 역할갈등									
자녀양육	0.75	2.18	2.33	2.07	2.08	1.14	1.86	-3.48***	5.37***
자기에 대한 평가	0.53	0.36	0.44	0.57	0.34	0.46	0.41	0.34	-0.30
아내역할	0.27	0.28	0.33	0.19	0.08	0.31	0.27	0.29	-0.49
남편과의 관계	-0.42	-0.01	0.23	0.06	3.38**	-0.03	-0.13	0.83	-0.05
가정관리	0.37	0.32	0.57	0.61	1.19	0.36	0.30	0.08	-0.57
시간관리	0.22	0.04	0.18	0.22	0.73	0.11	0.09	0.13	1.59
전체 역할갈등	2.27	3.17	4.07	3.71	0.83	1.98	2.05	-0.87	2.59**
2.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만족	0.67	0.14	-0.15	-0.28	3.94**	0.12	0.11	0.11	0.55
자녀관계	1.68	2.05	2.23	2.31	2.63*	1.14	1.82	-3.49***	5.17***
시간관계	0.37	0.43	0.03	0.21	1.41	0.35	0.21	0.96	0.97
가정의 경제상태	0.00	-0.39	-0.34	-0.44	1.64	-0.28	-0.35	0.59	0.33
가족생활	-0.04	-0.06	0.06	0.08	0.27	0.00	-0.08	0.69	-0.27
자아상	-0.33	-0.58	-0.69	-0.52	1.82	-0.48	-0.63	1.67	-1.03
전체 결혼만족도	2.36	1.59	1.14	1.36	0.61	2.00	2.06	-0.81	2.32*

(***: P<.001 **: P<.01 *: P<.05)

표 2-3. 남편의 지지에 따른 변인별 차이

변인별 요인	남편의 지지정도 ^{주)} 높은 지지 (37)	보 통 (187)	낮은 지지 (38)	F
1. 역할갈등				
자녀교육	1.46	1.31	2.08	3.02 *
자기에 대한 평가	0.42	0.35	0.89	3.57 *
아내역할	0.12	0.29	0.51	1.15
남편과의 관계	-0.48	-0.11	0.55	13.52 ***
가정관리	0.41	0.31	0.54	1.13
시간관리	-0.12	0.11	0.32	2.93 *
전체 역할갈등	1.81	2.25	4.89	6.34 **
2.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만족	1.09	0.13	-0.92	31.55 ***
자녀관계	1.72	1.30	1.69	1.60
시가관계	0.47	0.34	-0.16	3.94 *
가정의 경제상태	0.02	-0.25	-0.93	12.61 ***
가족생활	0.23	0.02	-0.59	9.49 ***
자아상	-0.46	-0.49	-0.90	6.23 **
전체 결혼만족도	3.08	1.06	-1.82	15.11 ***

(* : P < .05 ** : P < .01 *** : P < .001)

녀양육의 전가로 인한 모성역할에의 불충실함은 오히려 취업주부 자신을 갈등으로 이끌고 간 결과로 보여진다.

가사조력자의 유무는 전체 역할갈등 및 전체 결혼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조력자가 있을 경우가 없을 경우보다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만족할 뿐 아니라 역할갈등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2) 가설 II-2 검증결과 (표 2-3)

남편의 지지에 따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서 '자녀양육' '자신에 대한 기대' '남편과의 관계' '시간관리'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편의 지지가 매우 높은 집단에서 보다 보통인 집단에서 오히려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이 전통적으로 어머니역할로 간

주되고 있는 경향과 아내의 역할과중을 덜어주기 위해 남편이 도와줄 때 아내들은 오히려 갈등과 책임감을 느낄수도 있다는 Keith와 Schafer(1980)의 견해에 의하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자아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평가' 요인도 남편의 지지가 보통인 집단에서 가장 낮은 갈등을 보였다. 그러나 직장생활로 인해 야기되는 남편과의 갈등은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역할갈등은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갈등이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이다(P < .01). 따라서 남편의 지지는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자녀관계'를 제외한 '남편에 대한 만족' '시가관계' '가정의 경제상태' '가족생활' '자아상' 요인이 남편의 지지에 따라 의미있는 영향

주)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차이검증을 위하여 남편의 지지·직업만족도·전체역할갈등 정도와 전체 결혼만족도를 각 변인의 M±ISD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2-4. 직종·근무시간에 따른 변인별 차이

직종·근무시간(N)	직					F 값	근 무 시 가				F 값
	초등교사(56)	중등교사(57)	간호원(49)	사무직원(54)	상 인(46)		7~9시간(119)	9~11시간(117)	11시간이상(26)		
1. 역할갈등											
자녀양육	2.04	1.31	1.18	0.55	2.22	8.36 ***	1.17	1.55	2.21	4.07 **	
자기에 대한 평가	0.39	0.40	0.52	0.27	0.65	0.79	0.37	0.47	0.63	0.62	
아내역할	0.12	0.18	0.50	0.24	0.52	1.36	0.23	0.38	0.23	0.59	
남편과의 관계	0.08	-0.30	-0.11	-0.28	0.32	4.19 **	-0.08	-0.16	0.36	3.33 *	
가정관리	0.46	0.20	0.15	0.16	0.88	6.43 ***	0.20	0.42	0.75	4.72 **	
시간관리	0.22	0.17	0.02	0.02	0.13	0.95	0.08	0.12	0.18	0.19	
전체 역할갈등	3.31	1.95	2.25	0.92	4.72	5.58 ***	1.97	2.78	4.35	0.30 *	
2.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만족	0.19	0.22	0.18	0.18	-0.23	1.16	0.21	0.13	-0.35	2.27	
자녀관계	2.12	1.47	0.99	0.64	1.86	7.89 ***	1.24	1.51	1.84	1.76	
자기관계	0.32	0.24	-0.02	0.43	0.47	1.56	0.21	0.29	0.66	0.82	
가정의 경제상태	-0.23	-0.24	-0.49	-0.12	-0.54	1.92	-0.21	-0.38	-0.48	1.46	
가족생활	-0.03	0.07	-0.21	-0.04	0.01	0.67	-0.05	-0.02	-0.09	0.08	
자아상	-0.44	-0.38	-0.74	-0.48	-0.75	3.38 **	-0.44	-0.62	-0.71	2.76	
전체 결혼만족도	1.93	1.37	-0.30	0.60	0.82	2.22	0.95	0.91	0.88	0.01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5. 취업동기·직업만족도에 따른 변인별 차이

취업동기·직업만족도 변인별 요인 (N)	취		업		동		기		F 값	직		업		F 값
	체	적	업	발	동	회	기	타		만	족	만	족	
1. 역할갈등														
자녀양육	1.92	0.08	1.09	1.26	6.39 ***	1.34	1.46	1.46	0.10	17.55 ***				
자기에 대한 평가	0.52	0.18	0.36	0.77	2.27	-0.15	0.40	1.16	17.55 ***					
아내역할	0.34	0.24	0.20	0.47	0.42	-0.04	0.26	0.78	6.61 **					
남편과의 관계	0.09	-0.23	-0.42	0.05	3.96 **	-0.39	-0.09	0.30	6.79 ***					
가정관리	0.59	0.15	-0.01	0.41	6.37 **	0.11	0.33	0.07	5.47 **					
시간관리	0.10	0.02	0.29	0.16	1.32	-0.01	0.07	0.34	2.92 *					
전체 역할갈등	3.56	1.18	1.52	3.11	5.24 **	0.86	2.44	4.75	9.64 ***					
2.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만족	-0.11	0.06	0.25	-0.13	5.85 ***	0.38	0.12	-0.16	2.64					
자녀관계	1.59	1.27	1.52	1.06	1.16	1.98	1.40	0.93	4.94 **					
자기관계	0.21	0.44	0.47	0.14	1.11	0.54	0.26	0.14	1.77					
가정의 경제상태	-0.51	0.06	-0.23	-0.38	6.02 ***	0.07	-0.36	-0.52	5.93 **					
가족생활	-0.14	0.19	0.08	-0.23	2.59 *	0.28	-0.05	-0.31	5.18 **					
자아상	-0.64	-0.30	-0.46	-0.82	5.80 ***	-0.16	-0.57	-0.85	12.81 ***					
전체 결혼만족도	0.04	2.27	1.62	-0.36	4.63 **	3.09	0.08	-0.78	11.51 ***					

(* : P < .05 ** : P < .01 *** : P < .001)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남편의 지지가 있을 때 부인의 결혼적응(Goode, 1982), 결혼의 질(Lewis & Spanier, 1979; Thomas, et al., 1984) 그리고 결혼만족도(Burke & Weir, 1976, 1977) 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지지가 높을 때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은 낮아지는 반면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남편의 지지유무는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3) 가설 II - 3

직업배경변인에 따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검증결과는 표 2 - 4 , 표 2 - 5 와 같다.

즉 직종, 근무시간, 취업동기, 직업만족도는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역할갈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가정관리자로서의 주부 역할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 결과는 아내의 평균근무시간이 직업역할과 가정역할간의 긴장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라는 Keith 와 Schafer(1980)의 주장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또한 취업동기는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주부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취업할 경우 역할갈등은 높고 결혼만족도는 낮은 반면, 개인향상을 위해 취업한

집단은 낮은 역할갈등과 높은 결혼만족도를 표명함을 알 수 있다. 역할갈등에서 '자녀양육' 요인을 제외한 5개요인이 직업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 만족할수록 자아상확립을 표명한다고 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평가' 와 '아내역할' 에 대한 갈등이 낮으며 직장생활로 인하여 야기되는 남편과의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업에 만족할수록 주부역할에 대한 갈등이 낮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족으로 인해 시간관리상에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만족할수록 시간관리에 대한 갈등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업에 만족하는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역할갈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직업만족도에 따라서서 전체 결혼만족도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불만족한 집단일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만족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는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동원(1976), Zimmerman 등 (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직업만족과 결혼만족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가설 III 검증결과 및 해석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어떤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 - 6 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역할갈등과 전체 결혼만족도는 의미있는 상관

표 2 - 6.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

	RC1	RC2	RC3	RC4	RC5	RC6	RC	MS
RC 1. 자녀양육	1.0							
RC 2. 자기에 대한 평가	.26***	1.0						
RC 3. 아내역할	.20***	.43***	1.0					
RC 4. 남편과의 관계	.33***	.32***	.31***	1.0				
RC 5. 가정관리	.39***	.44***	.53***	.40***	1.0			
RC 6. 시간관리	.20***	.32***	.36***	.31***	.40***	1.0		
RC. 전체 역할갈등	.58***	.59***	.61***	.59***	.67***	.45***	1.0	
MS. 전체 결혼만족도	-.14**	-.27***	-.30***	-.27***	-.17**	-.22***	-.18**	1.0

(** : P < .01

*** : P < .001)

표 2-7. 역할갈등정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역할갈등정도(N)	높은갈등 (44)	보통 (173)	낮은갈등 (45)	F
결혼만족도 요인				
남편에 대한 만족도	-0.31	0.09	0.64	7.29***
자녀관계	1.91	1.53	0.47	10.50***
시가관계	-0.11	0.28	0.72	6.75***
가정의 경제상태	-0.82	-0.30	0.14	13.58***
가족생활	-0.46	-0.03	0.32	8.62***
자아상	-0.74	-0.55	-0.35	3.67*
전체 결혼만족도	1.80	2.05	2.13	4.97**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8. 결혼만족도에 따른 역할갈등의 차이

결혼만족정도(N)	만족집단 (42)	보통 (138)	불만족집단 (37)	F
역할갈등 요인				
자녀양육	1.87	11.45	0.93	2.76
자기에 대한 평가	-0.12	0.45	1.00	9.94***
아내역할	-0.33	0.32	0.91	12.73***
남편과의 관계	-0.49	-0.08	0.44	10.62***
가정관리	0.02	0.40	0.55	4.15*
시간관리	-0.24	0.13	0.38	6.63**
전체 역할갈등	1.76	2.02	2.14	4.74**

* : P < .05 ** : P < .01 *** : P < .001)

관계($r = -1.18, P < .01$)를 보이며, 이는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부적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수락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관계수(r)가 -0.18 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인의 의사소통양식의 특성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정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2-7), 결혼만족도의 6개 하부요인이 모두 역할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전체 결혼만족도에서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결혼만족도의 상·중·하 세 집단에 따라 역할갈등의 하부인 중 '자녀양육' 요인을 제외

한 5개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8).

이상의 가설Ⅲ을 종합해 볼 때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낮으며,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역할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주부가 직업을 가질 경우 자녀양육상의 갈등, 직장생활로 인해 야기되는 남편과의 갈등 및 가정관리자로서의 주부역할에 대한 갈등이 본 연구에서 택한 대부분의 배경변인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취업주부들 스스로가 어머니역할, 주부역할, 아내역할을 기혼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은 여성에 대한 역할기대와 여성 스스로의 역할인지 및 역할수행간에 역할갈등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2) 본 연구는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비교할 수 없었으나 자녀수, 가사조력자의 유무와 남편의 지지에 따라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한 경우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높아짐을 볼 때, 가정적 역할이외에 직업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혼여성들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주부의 증가 추세는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가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대로 부적상관을 보이긴 하였으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 = -0.18$ 로 낮게 나타난 결과는 한국인의 의사소통양식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연구자의 해석 이외에 두 종속변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측정과 심층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5개 직종에 따라 의도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경향을 기술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취업주부집단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직업위세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는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

석만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는 배경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의 규명을 위한 다원변량분석등의 적용은 조사연구의 이론화를 위해 필요한 일로 사료된다.

3) 남편의 지지변인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심층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측정되고, 연구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다원적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만족도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큰 연구과제로 사료된다.

5)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갈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여성의 역할갈등을 체계적으로 측정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역할갈등척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여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측정도구의 개발과 그에 따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김경동 :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78
- 2) 김명자 :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3) 김순옥 :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3
- 4) 김혜선 :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 5) 박숙자 :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8
- 6) 박태은 :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 권 2 호, 1983
- 7) 오인환 · George Won · 이상희, "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 9집, 1974
- 8) 오택섭 :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 나남출판사, 1984
- 9) 유영주 :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 서울대 가정대학논문집, 제 4권, 1979
- 10) 유영주: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0
 - 11) _____: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 12) 유은희: "한국 도시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13) 윤명희: "도시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5
 - 14)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1975
 - 15) 이동원: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27집, 1976
 - 16) _____: "한국의 가정생활과 여성의 역할", 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1979
 - 17) 이은주: "가족문제해결에 있어서 역할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8) 이정우: "전문직 여성의 가족관계관", 아세아여성연구, 13집, 숙명여대 출판부, 1974
 - 19) 이종림: "기업조직내 심리적 풍토와 실무태도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20)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 21) 최영안: "판매여사원의 직무만족감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22) 최재석: "한국도시가족의 권력구조: 서울시 가족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제 14집 4호, 고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0
 - 23) 한남제: "직업부부의 가족문제", 경북대논문집 (인문·사회), 제 16권, 1972
 - 24) Berkowitz AD & Perkins HW: "Stress Among Farm Women: Work & Family as Interacting Syst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84
 - 25) Burke RJ Weir T: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6
 - 26) Burke RJ & Weir T: "Marital Helping Relationships: The Moderators between Stress and Well-Be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95, 1977
 - 27) Deutsch M: "Conflicts: 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25, 1969
 - 28) Duvall EM: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JB Lippincott, 1977
 - 29) Dyer WG: "Role Theory and Patterns of Conjugal Role-Relationships", in *Sociology of the Family*, ed., Michael Anderson, *Penguin in modern sociology books*, 1971
 - 30) Good WJ: 최홍기역, 가족과 사회, 서울: 삼성문화문고, 1982
 - 31) Hatch MG & DL Hatch: "Problems of married working women as presented by three popular women's magazines", ed., N. Glazer-Malbin and HY Waehrer, *Women in a man-made world*,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Nevill & Damico (1975)에서 재인용
 - 32) Herman JE & Gyllstrom KK: "Working men and women: interand intra-role conflic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3), Berkowitz & Perkins (1984)에서 재인용 1977
 - 33) Houseknecht SK & Macke AS: "Combining Marriage &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3, Aug. 1981
 - 34) Houseknecht SV Vaughan S Macke AS: "Marital Disruption among Professional Women: The Timing of Career and Family Events", *Social Problems*, Vol. 31, No. 3, Feb. 1984
 - 35) Keith PM & Schafer RB: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1983
 - 36) Lewis R & Spanier G: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 37) Nevill D & Damico S: "Development of a Role Conflict Questionnaire for Women: Some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No. 5, 1974
 - 38) Nevill D & Damico S: "Role Conflict in Women as a Function of Marital Status", *Hum*

- an Relations*, Vol. 28, No. 5, 1975
- 39) Orden SR & Brudburn NM: "Dimensions of Marriage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3, 1968
- 40) Sieber SD: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9, 1974
- 41) Skinner DA: "Dual-Career Family Stress and Coping: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October 1980
- 42) Szinovaca ME: "Role Allocation, Family Structure and Female Employ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77
- 43) Thomas, S Albrecht K & White P: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in Dual-Career Couples", *Family Relations*, October 1980
- 44) Zimmerman KW Skinner DA & Birner R: "Career Involvement and Job Satisfaction as Related to Job Strai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eachers and Their Spou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July Vol. 8, No. 6. 1980
-